

● 〈세계청소년 의식구조〉 비교 조사

우리나라
청소년

성역할 고정관념 세계 으뜸

사회불만인식도 11개국 중 가장 높아

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 각국 청소년들에 비해 전통적인 남녀역할에 가장 긍정적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인식도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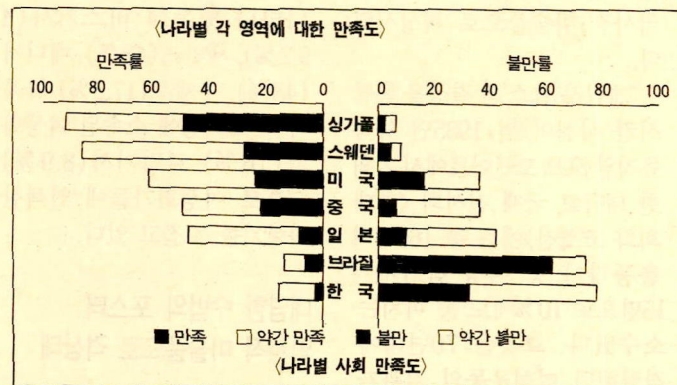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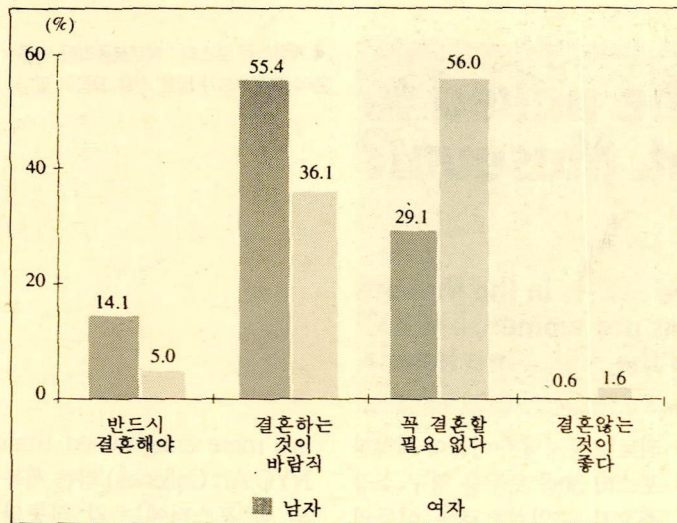
일본 총무청 청소년 대책 본부가 세계 1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'세계 청소년 의식구조'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들의 결혼관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.

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조사연구소가 만 18세~24세 사이의 청소년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에 참여했다. 도표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▲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고, 여자는 집안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녀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. 찬성비율을 각 나라별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30% 이상으로 가장 우세.

그러나 찬성을 41.8%로 나타난 83년 조사에 비하면 약 6% 정도가 줄어 전통적인 사고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.

그러나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같은 고정관념에 대해 73.6%가 반대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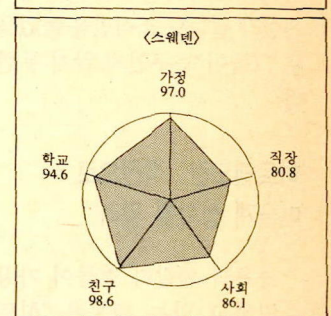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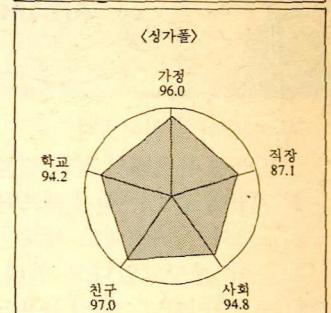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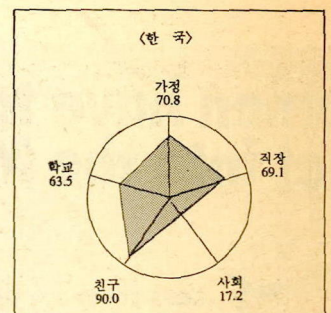
와 '결혼하지 않을 것이다.' 등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83년에는 38.7%였던 반면 88년에는 43.6%로 늘어난 것.

특히 남녀별 격차는 매우

봄직하다.

▲각국의 사회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. 불만 이유는 '서열 등만 중요시 (74.5%)', '빈부격차 극심 (68.6%)', '웬일 안통함 (66.9%)', '사회복지 미비 (51.9%)' 등이 꼽혔다.

▲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



정·학교·직장·친구·사회 등 각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총괄해 보면 위와 같다. 브라질과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게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.

반면 싱가포르나 스웨덴 등은 수치가 골고루 높은 편.

〈박미라 기자〉